

독도주민등록증 만든 LX의 또 다른 도전

드론 활용 3D 독도 정밀측량·고해상도 영상 취득

15년 전, 독도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줬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최신측량기술을 동원해 독도가 유리영토임을 재확인 시켰다.

LX는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독도에 대한 3차원(3D)정밀측량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을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LX가 전신인 대한지적공사 시절인 2004년, 독도의 지적측량을 완료해 지적도를 정비한 후 15년 만이다.

LX는 이후에도 2009년에는 울릉도 주변 미등록 도서를 지적도에 등록했고 2013년에는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독도 산립생태 복원 사업을 도운 바 있다.

LX는 독도 3D측량을 통해 영토수호로서의 근거자료 뿐 아니라 문화재·관광

자원으로서의 독도 가치를 정밀데이터로 기록화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해 고해상의 영상자료를 취득한 후 국토조사나 공간정보생성 등 다양한 국토영상데이터를 국토정보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이다.

측량은 LX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건태) 소속 2개 팀과 드론, Network RTK(실시간 이동 측위, Real Time Kinematic) 등 첨단 측량장비들이 동원됐다.

최창학 사장은 "올해는 상해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기를 맞는 매우 뜻깊은 한 해라며 "일본의 영토 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독도가 명실상부한 우리의 국토임을 확고히 하는데 있어, 이번 사업이 중요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LX가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독도에 대한 3차원 정밀측량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영상을 취득했다.

심층상담 통해 소상공인 판로 개척 '탄력'

전북중기청, 수도권 MD초청 구매상담회 성황리 마쳐 우수제품의 대형유통망 입점 위한 릴레이식 1:1 상담 호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이 도내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해 진행한 '2019 수도권 MD 초청 구매상담회'가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상담회는, 평소 현장행정을 중요시 하는 김광재 청장이 기업의 요청사항

을 반영하여 진행 한 것이다.

먼저, 대형마트에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중소기업이 요청한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형유통망 MD를 전북에 초청하여 기업대표자와 MD간 릴레이 방식의 1:1 구매상담 방식으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수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아리울수산, 물결레 청소기를 생산하는 쉼터엔티 등 유통망 입점을 희망하는 7개 분야의 29개사와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온, 오프라인 10개사의 구매담당자가 참여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구매상담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담회 진행 전에 참여기업의 회사 및 제품설명서를 MD에 제공하여, 사전에 참여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행사당일에는 대형유통망 MD 1명당 평균 9개사를 참여기업당 3명

의 MD와 1:1 상담을 진행하여 모두 87회의 심층상담을 했다.

행사이후에도 참여 MD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기업별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참여기업에 통보하고 참여기업의 대형유통망 입점을 위해 MD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상담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내 우수기업의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계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희망의 공부방 제86호 오픈식 가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6일 익산시 신동에 위치한 김은정(가명, 초1) 아동의 집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86호' 오픈식을 했다고 밝혔다.

김은정 아동은 교통사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아버지, 몸이 아픈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으며, 매월 고정된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원기입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공부방은 꿈꿀 수 없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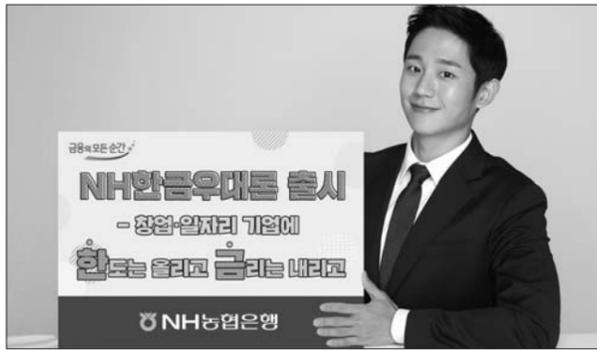
전북은행에서는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에 도배, 장판 및 LED전등 교체를 통해 생활환경을 밝게 개선하고 책상, 의자, 도서, 블라인드 등을 새롭게 지원해 아동이 마음껏 공부하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부방을 조성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대출한도·금리 우대 'NH한금우대론'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NH한금우대론 대출상품을 오늘 출시한다.

NH한금우대론은 농협은행 거래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외는 별도로 특혜권·실용신안권·신기술인증서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이나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대 2.60%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또한, 대출 신청액을 포함하여 사업자금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술형 창업 개인사업자에게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본 상품은 운전자금 용도이며, 일시상환 또는 할부상환으로 최대 1



NH농협은행이 NH한금우대론 대출상품을 출시했다.

년까지(기한연기 가능) 지원한다.

김장근 본부장은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혜택으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농협은행은 지역밀착형은행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산물 수급안정, 현장에서 답을 찾다

aT, 부안서 혁신워크숍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는 최근 부안에서 aT가 수행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사업에 대한 분석과 현장밀착형 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혁신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워크숍에 참석한 aT 수급사업 담당자 100여명은 ▲농산물유통정보종합시스템 구축현황 ▲35년 만에 부활한 국산 밀 수매현황 및 밀산업 발전방향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대응 안전성 관리현황 등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미래과제 발굴을 위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특히, 국내농업 보호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심층논의가 증점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aT는 민간의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농산물의 가격 불안에 대응하여 중국 대련에 수입정보 전달단 파견요원을 파견하고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등 12개국 37명의 해외모니터 요원을 17개국 42명으로 확충하는 등 농산물 수입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작황호조로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6월 현재 수확 중인 양파 1만2,600톤, 마늘 2만3,000톤, 노지 봄배추 4,500톤 등에 대한 수매비축도 추진한다.

PLS제도 정착을 위해 수매 및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 등 식품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책임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남원산림조합, 임도사업 평가 1위 쾌거

친환경·규정 준수 임도개설 추진 인정받아

남원산림조합이 2019년 임도사업(간선임도·작업임도)평가에서 1위와 2위라는 성과를 올렸다.

남원산림조합의 이번 성과는 간선임도·작업임도 등 2개 분야에서 친환경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임도개설을 추진한 것이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8년도 실행한 사업장으로 시설기준 적합여부, 운용시 안정성 등을 주요평가 항목으로 해 심사하고, 산림전문가, 설계사, 시공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현장실사를 거쳤다.

남원산림조합은 2018년 장수군청이 발주한 간선임도 신설사업(산서면 오산리 1.0km)가 1위로 선정되었으며, 남원시가 발주한 2018년



작업임도 신설사업(대산면 풍촌리 1.28km)가 2위를 차지했다.

운영창 남원 산림조합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더 친화적으로 작업이 나서는 한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농협, 축산농가 소득향상 위한 맞춤형 교육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고창부인축협(조합장 김사중)은 26일 고창부인축협 한우명품관 회의실에서 조합원 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위해 관내 축협 조합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진행하여, 축산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경영·사양·질병·번식·개량·환경·축사시설·계통판매체계 등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축산기술을 보급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부인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실시된 컨설팅은 한우 암소 개량의 필요성과 기록관리, 할통관리, 목표설정, 개체선발, 계획교배, 개체도태 등 암소개량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강의와 농가 질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참석 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유재도 본부장은 "교육·컨설팅으로 지속적인 암소개량을 통한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